

“용돈 마련하자”...명절 선물 되팔기 ‘성행’

중고사이트서 거래 활발...‘이재명 선물세트’ 매물도 올해까지 건강기능식품 개인 거래 허용에 ‘매진 행렬’

추석 명절에 받은 선물세트를 판매하는 ‘선물 되팔이’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따르면 연휴 기간 과일, 버섯, 홍삼 등 포장도 뜯지 않은 명절선물세트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게시글과 거래 요청이 폭증하고 있다.

이는 판매자가 명절에 받은 선물 중 불필요한 물건을 팔아 현금화하고, 구매자는 원하는 물건을 저렴하게 사려는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실제 추석 연휴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다양한 선물세트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대다수 게시글은 ‘미개봉’과 ‘고급’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광주 동구 산수1동의 한 작성자는 나주 배 선물세트 7.5kg을 3만5000원에 내놓았다. 작성자는 품종, 산지, 등급이 적힌 표시 사항과 시중가보다 4000원~1만원이 저렴하다고 후술했다.

서구 쌍촌동의 다른 작성자는 식초, 참기름, 참치, 소금 등으로 구성된 선물세트를 1만8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글쓴이는 ‘추석 명절 때 받은 상품으

로 거래 후 환불 불가’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인터넷 가격(2만2000원~2만5000원)보다 저렴해 조회수는 260여회를 기록했으며, 5명이 거래 문의를 했다.

‘장흥 표고버섯 선물세트 세상품 팝니다’란 제목의 판매 글도 있었다. 글쓴이는 안 먹어서 싸게 내놔다며 백화고 250g, 흑화고 250g이 담긴 버섯을 6만원에 판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 추석 선물세트’ 판매 게시물도 올라왔다. 판매자는 ‘김, 쌀, 미역 등의 특산품과 탁상시계 2개로 구성된 선물세트는 고급스러움이 있다’고 홍보했다. 가격은 25만~35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일부 상품은 이미 ‘예약중’ 상태다.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는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 종료로 올해 5월7일에서 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가이드라인도 일부 하향 조정한 영향이다.

정부는 금액 제한(개인별 30만원)을 없애고 누적 10회 이내 거래를 허용했다. 소비기한 요건도 ‘6개월 이상 잔존’에서 ‘소비기한 내’로 간소화했으며 제품 게시 방식도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문구’를 노출하는 수준으로 완화했다.

사실상 올해 명절까지 건강기능식품이 판매가 가능하다는 소식에, 온라인 중고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실제 당근마켓에는 홍삼 등의 건강식품을 내놓는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이중 ‘홍삼스틱 20포를 1만8000원에 판매합니다’란 게시 글의 조회수는 80여

회이었고, 6명이 판매자에게 쪽지를 보냈다. 일부는 게시물 등록 6시간 만에 거래가 완료됐다.

시민들이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명절선물 중고거래를 통해 생활비를 절약하고, 용돈을 마련하는 ‘명절 제테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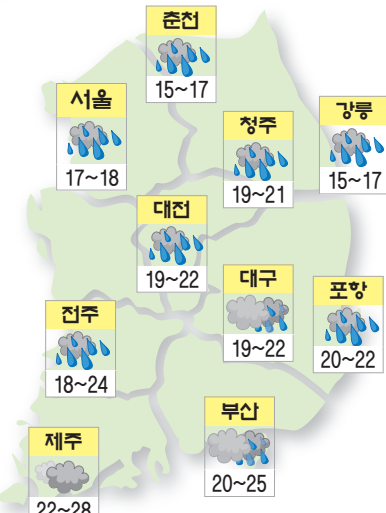
원하는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가성비’ 소비 패턴도 한 몫 하고 있다. SNS 등에서는 필수 식료품을 사기 위해선 명절을 노려야 한다는 노하우가 공유될 정도다.

김보씨(36)는 “설날에 받은 선물세트가 아직 남아 있어 고민이다”며 “집에 쌓아두기보다는 현금으로 바꾸는 것이 생활비에 보탬이 된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	예보	06:37	달달	23:03
☀️	예보	18:00	달달	13:27



광주	☁️	19~26
목포	☁️	19~26
여수	☁️	20~24
순천	☁️	20~25
구례	☁️	20~25
광주	☁️	17~27
◡	◡	◡
전남	☁️	19~27
전남	☁️	20~25
전남	☁️	18~27
전남	☁️	17~26

목포	☁️	06:10 / 19:14
여수	☁️	11:14 / ---:---
여수	☁️	00:28 / 13:49
여수	☁️	06:44 / 20:10

북구, 침수 피해 주민 지원 의료비 대상자 500명 모집

광주 북구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북구는 12일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의 의료급여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돕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 기준 재난자수 300이 넘는 피해를 입은 자 중 재난으로 사망 또는 실종된 사람의 유족, 주택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주민 등이다.

기록적인 폭우가 시작된 지난 7월16일부터 10월15일까지 3개월 기간 중 병원·약국을 이용하고, 납부한 본인부담금 중 의료급여 소급 책정으로 인한 차액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내용은 침수 피해 주민에게 의료급여 1종 자격을 한시적으로 부여해 진찰, 입원, 수술 같은 필수 의료 서비스부터 재활, 장애인 보조기기, 틀니·임플란트 등에 따르는 의료비다.

오는 20일부터 대상자 모집을 진행하며 총 12억7000여만원을 투입해 500여명의 주민을 지원한다.

북구는 20일부터 31일까지 2주간을 집중 신청 기간으로 정하고 신청안내문 발송, 개별 유선·문자 안내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또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소견이 담긴 진단서를 제출하면 지원 기간이 3개월 늘어나 오는 2026년 1월15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비급여 또는 선행급여 진료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자격은 수급권자 본인 또는 친족,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이며 올 연말까지 신청서를 비롯한 구비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지난 여름 발생한 침수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의료급여를 확대 적용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일상 회복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남구, 청년들과 참여 중심 ‘소통의 자리’

백운광장서 청년축제 개최

광주 남구가 청년들을 위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눈길을 끈다.

12일 남구에 따르면 전남 백운광장 스트리트 푸드존 일원에서 ‘남구 청년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청년끼리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젊음의 패기로 새 도약을 다짐하기 위한 자리로 제5기 남구 청년 네트워크에서 소통과 참여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기획했다.

축제는 어쿠스틱 보컬과 힙합, K-Pop 등 장르에 제한 없이 신명나게 흥을 즐기는 사전행사 무대로 시작했다.

이어 김병내 구청장의 개막 선언과 함께 본 행사가 열렸다.

뽕뽕 남구오락실과 로테이션 소개팅, 토토즐 백운광장 디제이 파티까지 청춘의 열기를 내뿜는 행사가 연달아 진행됐다.

특히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단체 미니 게임인 뽕뽕 남구오락실 프로그램은 현장에 있는 청년들의 호응을 얻었다.

구청장과 청춘들의 대화 시간도 마련됐다. 이날 김 청장은 취업과 학업, 연애 등 다양한 주제로 얘기를 주고받으며 청년들의 고민에 대한 인생 조언을 비롯해 함께 춤추기 등 게임을 즐기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축제는 2000~2020년대 히트곡으로 채워지는 토토즐 백운광장 디제이 파티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밖에도 청년축제 행사장 주변에 열쇠고리를 비롯해 카드 지갑, 팔찌, 풍경 등을 만드는 공예 체험 부스가 무로로 운영돼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나종대 남구 청년네트워크 위원장은 “우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들으면서 소통의 폭도 넓히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광산구, 18일 ‘2025 광산세계야시장’ 개최

베트남 등 19개국 공동체 참여

광주 광산구가 오는 18일 월곡동 일대에서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만드는 세계의 맛과 멋의 축제 ‘2025 광산세계야시장’을 개최한다.

12일 광산구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월곡동 생활권 도로(하이마트~하남농협 산정지점)에서 열리며, 이 구간은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된다.

올해는 베트남과 중국, 우즈베키스탄, 태국, 캄보디아, 인도, 터키 등 19개국 공동체가 참여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나라별 공동체가 함께하는 세계전통의상 퍼레이드 △아오자 이 놀라춤 등 세계문화 공연 △개그맨 김용명과 함께하는 선·이주민 파워공감 토크쇼 △고려인마을과 월곡시장을 탐방하는 월곡골목여행 등이다.

특히 세계놀이·전통의상 체험 공간, 빈백 힐링 공간을 조성해 머물며 즐기는 체류형 축제 공간을 구성했다. 일정호 기자

태아인 무더위...광주·전남 10월 기온 ‘역대 최고’

기상청 “당분간 뉘더위 지속”

광주·전남 지역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역대 10월 최고 기온을 경신한 가운데 한동안 뉘더위가 계속될 전망이다.

1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남 광주·전남지역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맑은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랐다.

이날 주요지점 일 최고기온은 광양 31.4도, 광주 30.8도, 순천 30.8도, 곡성

30.6도, 강진 30.5도, 고흥 30.4도, 담양 30.3도, 장흥 30.1도, 구례 29.9도 등을 기록했다.

이는 평년 낮 최고기온인 21.6~23.9도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일 최고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실제 강진은 30.5도로 지난 2021년의 30.4도를, 30.4도를 기록한 고흥은 1987년 29.9도 기록을 경신했다.

이외에도 광양, 장흥, 완도, 순천, 보성 등 지역에서 종전 낮 최고기온을 웃돌았다.

기상청은 한반도 남쪽 고기압이 평년

보다 확장한 상태로 머물면서 대기 평균기온이 비교적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보통 가을철의 경우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밤사이 지표 부근 기온이 크게 하강하는 복사냉각이 활발히 일어나는데, 계속 구름이 자리하면서 열이 충분히 빠져나가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기상청은 한동안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17~20도, 낮 최고기온은 24~27도로 평년기온(아침 최저기온 10~16도, 낮 최고기온 22~24도)보다 비슷하거나 높겠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광산구 삼거동 쓰레기소각장 ‘장기 표류’...“골든타임 허비”

입지 선정 절차 올스톱...2029년 완공 로드맵 ‘먹구름’ 민간 위탁하면 비용 11배 ↑...연 추가예산 400억 추정

광주광역시자원회수시설(소각장)이 오는 2030년 직매입 금지 정책 시행일까지 건립되지 않으면 광주는 쓰레기 대란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소각장 건립 지연으로 쓰레기 처리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연간 수백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광산구 등에 따르면 매패지 부속과 매패지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온실가스 발생 등의 문제로 2021년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 오는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입이 전면 금지된다.

직매입 금지에 맞춰 소각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생활폐기물을 계속 배출할 경우 법적 처분이 뒤따르게 된다.

그러나 최근 광주 광역자원회수시설 최적으로 선정된 광산구 삼거동 건립 후속 절차가 위장전입 문제 등으로 늦어지고 있다.

현재 입지 선정 절차가 잠정 중단됐으며, 검찰의 기소가 결정되면 후보지에서 최종 박탈돼 다시 입지를 선정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사실상 관련 절차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광주시가 구상한 2025년 입지 선정, 2027년 착공, 2029년 완공의 로드맵 추진에 적신호가 켜졌다.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이 난항에 빠지자 광산구 등 자치구도 대책안 마련, 후속조치 검토 등에 나서고 있다. 2030년에 자원회수시설이 가동되지 못할 경우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현재 광산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는 광주시가 2014년 설립·운영하고 있는 SRF 시설(가연성폐기물열화시설)을 통해 모든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이중 광산구가 올해 SRF시설에 부담

하고 있는 폐기물 비용은 1t당 2만504원이다.

반면 분량동 한 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있는 폐기물 소각비용은 1t당 23만 원에 달한다.

광산구가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경우 폐기물 처리 비용이 11배 이상 차솟을 것으로 추정됐다.

하루 550t 발생하는 광주지역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연간 약 462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양만주 광산구 의원은 “2030년 직매입 금지 정책 시행까지 자원회수시설이 건립되지 않는다면, 광주는 쓰레기 처리에 심각한 자질을 빚고, 생활폐기물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생

활폐기물 처리 공백과 패적한 생활환경에 내일, 내일은 없다.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광주 SRF시설 역시 2031년이 되면 위탁 기간이 만료되며, 내구연한 임박 등으로 인한 보수·운영비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료 수급 불안정과 잔재물 중 가연분의 추가 소각, 악취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쓰레기 대란 우려가 커지자 후보지 선정에서 탈락했던 분량동 등 일부 주민들이 뒤늦게 찬성 입장을 보이는 등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그동안 자원회수시설 추진을 위해 2년 6개월의 시간과 수많은 예산, 노동력이 투입됐다”면서 “광주의 미래를 지키고, 미래세대에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